

초등학교 고학년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교우관계 분석*

An Analysis of Friendship by Gender-Role Identity in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이정희(Jung-Hee Lee)¹⁾

정경연(Kyoung-Yeon Jeong)²⁾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d differences in friendship among children of the same and/or opposite sex and their gender-role identities. Friendship and gender-role identities among 423 children in the 5th and 6th grades were examined. Data was analyzed by MANOVA and ANOVA. Findings were : (1) there were some differences between boys and girls in rank order of the distribution of gender-role identity types : androgynous type was most common in girls; undifferentiated was most common among boys. (2) Results of friendship based on sex and gender-role identity showed that boys and girls with androgynous gender-roles were friendly with both boys and girls. Among boys, masculine types were particularly friendly with boys; among girls, masculine types were particularly friendly with girls.

Key Words : 성역할정체성(gender-role identity), 교우관계(children's friendship).

I. 서 론

초등학교 5, 6학년은 2차 성징으로 인한 신체적 성숙의 시작과 함께 심리적·정서적 혼란으로 인한 다양한 특징을 나타내는 시기이다(임낙수, 2003). 5, 6학년의 심리적·정서적 혼란은 교우관계에도 반영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래집단간 알력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알력이 학교폭력, 왕따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황인복, 2005). 특히 5, 6학년 여학생의 또래집단 형성 비율은 남학생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고효순, 2003; 정원식, 1981), 6학년 여학생은 몇몇 카리스마 있는 아이를 중심으로 집단을 형성하여 담임교사에게 대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2008AA034).

¹⁾ 동의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

²⁾ 금강초등학교 교사

Corresponding Author : Kyoung Yeon Joung, Eeum-gang Elementary School Onchonon-Dong, Pusan, Korea
E-mail : yeon305@hanmail.net

적하기도 하고, 친구를 왕따 시키기도 한다(내일신문, 2007. 7. 20). 따라서 5, 6학년 교사들은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6학년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아동후기 또래집단 형성을 통한 교우관계의 양태는 학년과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학년에 따른 교우관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Youniss (1978)와 김민정(2004)은 저학년에서는 놀이와 같은 물리적 요인이, 고학년에서는 친밀성, 충성심, 공유, 지지, 도움, 애정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교우관계 형성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Berndt와 Perry(1990)은 11세 이상의 아동은 친구를 관심과 가치가 비슷하고 속마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보며, 성실하고 충실하며 필요할 때는 언제나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최순영, 2005). 즉 이 시기의 아동들은 교우관계에서 친밀감의 욕구가 높은 시기로 친구의 외부적 행동뿐만 아니라 내부적·심리특성을 이해하고 친구를 결절하게 된다(이상희, 2000; 김부흥,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 5, 6학년의 교우관계를 심리적 요인을 바탕으로 신뢰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우정을 형성하여(김영진, 2005) 서로에 대해 나누는 지속적인 관계로 정의한다.

아동후기에 해당하는 5, 6학년은 친구와의 깊은 교우관계를 통해 안정감과 자신감을 기르는 시기이면서도(신기은, 1998), 공동체 의식이 발달하여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된 교우관계는 동성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으며, 이성간에는 대립의식이 증대되어 반목하는 경향을 보인다(강신복·차호원, 1987). 이러한 대립의식이 심하면 한 학급이 남녀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동후기의 특징에 따

라 이성간의 교우관계가 확대되기도 한다(Feiring & Lewis, 1991). 따라서 5, 6학년의 교우관계는 동성과 이성 간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성에 따라 나타나는 교우관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동성친구와의 상호작용이 빈번하며, 친구가 더 많고, 남학생보다 친밀감, 정서적 안정을 포함한 교우관계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민정, 2004; 윤영옥, 2003; Berndt, 1986; Parker & Asher, 1993). 교우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되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사회적인 행동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후기 교우관계는 학년과 성별에 따라 동성과 이성 간에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아동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우관계 연구들은 남녀 교우관계의 차이를 성차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김미란, 2002; 김진경, 2002). 하지만,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여학생 집단의 리더는 주로 거친 행동과 모습을 보이며, 남학생 못지않은 폭력적인 공격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더 이상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남성의 특징과 감정적이고 표현적이며 관계 지향적인 여성의 특징에 의한 차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것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고, 여성해방 운동으로 인한 사회변화로 전통적인 성역할관념에 따른 성역할정체성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변화에 따라 과거 남학생들이 보였던 행동 특징을 여학생들이 나타내고 있으며, 여학생들이 보였던 행동 특징을 남학생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학교조직의 여성화는 남학생을 여성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성역할에 대한 변화는 아동의 성역할정체성의 변화를 초래하며, 성역

할정체성의 변화가 남녀 또래집단에서의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후기에 나타나는 남녀 교우관계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이성과 동성간 교우관계에 나타나는 성역할정체성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성역할정체성은 자아정체감의 한 부분으로 아동후기를 비롯한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정 중의 하나이다. 특히 청소년기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아동후기는 성역할정체성이 구체화되는 시기이다(유가효, 1994). 성역할(gender role)이란 어떤 문화 내에서 성별에 따라 인정되고 기대되는 행동양식, 태도, 인성특성을 포함하는 행동기준을 의미하며, 각 문화와 한 문화권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변천하게 된다(이미화, 1986). 개인은 어린시절 초기에 자신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성별 정체성을 가진 뒤 그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에서 자신이 성에 적합하다고 규정된 일련의 가치관과 특성을 습득해 가는 성유형화 과정과 부모, 형제, 등 주위 사람들에 의해 성별에 따른 적절한 역할을 인식하는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역할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김영희, 1988). 따라서 성역할정체성은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행동 기준을 개인이 내면화시킨 정도를 뜻하며(김혜래, 2006), 개인의 행동과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에게 나타나는 성역할정체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개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김선정, 2002).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용어로 개념화 하였다. 이 두 특성은 상호 배타적이며 양립될 수 없으므로 남성성 혹은 여성성 중 한 쪽의 성향만을 가져야 한다(Whitley, 1983).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전통적 성역할 개념은 모든 여아들은 여성적인 성역할정체성을 습득하고 모든 남아들은 남성적인

성역할 정체성을 습득한다고 본다(Cook, 1985). 그러나 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 과학기술의 발달, 여성운동의 확산 등으로 인한 사회문화의 급격한 변화는 성역할 유형의 변화를 가져왔다(김혜래, 2006).

Bem(1974)은 전통적인 남성성, 여성성의 이원적인 구분과는 달리 양성성(androgynous)의 개념을 제안하면서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유형과 함께 네 가지의 성역할정체성 유형을 제시하였다. 남성성 유형은 남성에게서 더욱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기본적인 행위나 태도, 가치관 등을 가진 유형으로서 도구성이 높고 표현성이 낮으며 이성적, 객관적, 독립적, 목표 지향적인 특징을 가진 전통적인 남성성을 나타내며 대표적 특성으로는 주도성을 들 수 있다. 여성성 유형은 도구성이 낮고 표현성이 높은 집단으로서 감성적, 주관적, 의존적, 수동적인 특징을 가지면, 다정하고 동정심이 강하여 상냥하고 부드러운 속성으로 전통적인 여성성을 나타낸다. 미분화 유형은 도구성과 표현성이 모두 낮은 집단으로서 한 개인이 성역할정체성에 있어서 전통적인 남성성 특성과 여성성 특성 중 어느 한 쪽도 잘 표현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양성성 유형은 한 개인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면서 이를 통합시켜 상황에 따라서 남성의 도구적 역할과 여성의 표현적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남성의 주도성과 여성의 친화성이 균형을 잘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김병선, 1998). 즉 양성성은 하나의 유기체 내에서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보다 효율적인 성역할 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선정, 2002). Taylor와 Hall(1982)은 남성이나 여성을 막론하고 한 개인의 성(性)이 고정화되는 것은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한 성역할로 양성성을 지지하고 있다(김영희,

1998; Bem, 1974; Spence et al., 1975). 따라서 최근 성역할정체성에 있어서 양성성을 개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김정희, 2005; 장순아, 2002).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역할정체성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성역할 유형분포는 연구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관된 결론을 얻기 힘들다(김병선, 1998; 홍성욱, 1996; 유가효, 1994; 김선정, 2002). 또한 선행연구는 성역할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김선정, 2002; 유가효, 1994; 손나연, 2002). 성역할 유형에 따른 초등학교 아동의 특성을 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양성성 유형이 학교적응을 가장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임, 2006). 서은희(1995)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양성성 유형이, 여학생은 남성성 유형이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안순(2004)의 연구에서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우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남성성 유형이 교우관계가 좋았으며, 여학생의 경우 양성성 유형이 교우관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는 남여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적응 및 사회성의 차이를 밝히고 있지만, 성역할정체성과 교우관계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성역할정체성의 발달과 함께 동성 및 이성 친구 간 교우관계가 각각 다른 형태로 확대되는 시기이므로 성별에 따른 동성 및 이성간의 교우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아동기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교우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동의 건강한 성역할정체성과 사회성 발달을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왕따와 집단따돌림 문제를 예방하는 생활지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

생들의 성별에 따라 성역할정체성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남녀별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동성 및 이성친구와의 교우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성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성별과 성역할정체성에 따라 교우관계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남학생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동성 및 이성의 교우관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여학생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동성 및 이성의 교우관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4개 초등학교 5, 6학년 총 16개 학급의 아동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학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정한 가, 나, 다, 라 학교 급지에 따라 지역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각 급지 한 개씩의 학교를 선정하였다. 표집대상 학급은 라급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5, 6학년에 2개의 반만 있어 라급지 학급의 수를 기준으로 가, 나, 다급지 학교에도 5, 6학년 각 2개 학급을 표집하였다. 표집 학교 모두는 아파트와 주택이 공존해 있는 구시가지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으로 부산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지만, 아파트 밀집의 신시가지와 같은 특별한 교육적 여건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설문지는 450부를 배부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 불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빈도	%	변인	빈도	%	
5학년	223	52.7	남	212	50.1	
6학년	200	47.3	성별	여	211	49.9
합계	423	100	합계	423	100	

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분석이 불가능한 자료 27부를 제외한 423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교우관계

교우관계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영역으로 큰 의미를 지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 학급내의 아동 상호간의 인간관계에서 신뢰감, 존중감 및 친밀감을 측정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학급 내 또래관계에 대해 아동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및 태도, 행동특성을 아동 스스로 평가해 보는 검사로 홍옥순(1984)이 개발한 자료를 참고하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김성남(2007)이 34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교우관계 척도는 34개의 문항 중 전체 신뢰도를 저해하는 2개의 문항을 제외한 32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었다. 척도 점수의 가능범위는 최저 32점부터 최고 1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은 것을 나타낸다.

동성과 이성간의 교우관계 측정은 같은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각 문항 앞에 ‘우리 반 남자친구’, ‘우리 반 여자 친구’라는 말을 삽입하여 한 명의 아동이 이성과 동성에 대한 각각의 교우관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교우관계 척도의 하위요인은 신뢰감, 존중감, 친밀감의 3가지이다. 교우관계 검사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첫째, 신

뢰감은 학급의 동료 아동을 믿고 있는지 않은지를 나타내는 심리적 경향으로, “나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킨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존중감은 학급 동료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있는지 멸시하고 있는지의 경향으로, “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친밀감은 학급의 동료 아동들과의 관계가 심리적으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지 같등을 가지고 있는지의 경향으로, “나는 우리 반 친구들이 가깝게 느껴진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성남(2007)의 신뢰도 계수는 신뢰감 .71, 존중감 .76, 친밀감 .69, 전체 신뢰도 .72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여자친구와의 교우관계 검사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4 이었으며, 남자친구와의 교우관계 검사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87이었다. 여자친구와의 교우관계 각 하위요인별로 신뢰감 계수는 신뢰감 .90, 존중감 .86, 친밀감 .80이었다. 또한 남자친구와의 교우관계 각 하위요인별로 신뢰도 계수는 신뢰감 .79, 존중감 .69, 친밀감 .69로 나타났다.

2) 성역할정체성

본 연구에서 아동의 성역할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김혜래(2006)의 성역할정체성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김영희(1988)의 한국형 성역할검사지인 (Korean Sex Role Inventory : KSRI)를 근거로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개발된 도구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척도를 개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의 아동용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5학년 한 학급에 김혜래(2006)의 성역할정체성 검사지를 보여준 후 답하기 어렵거나, 이

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1차 예비조사에서 아동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 문항들은 ‘우직하다’, ‘대담하다’, ‘섬세하다’와 같은 낱말 뜻을 이해하지 못해 응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차 예비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초등학교생이 이해하기 쉬운 낱말로 대체하거나 낱말 뜻을 풀이하는 형태로 질문지를 구성한 후, 상담심리 박사학위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 2명과 상담심리 박사학위 전문가 2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이 과정에서 용어나 문항의 이해도를 재조정하였다. 1차 예비조사를 통해 완성된 검사지를 다시 5학년 한 학급에 실시하여 문항의 이해 정도를 확인한 후 신뢰도를 측정하고 본조사에 실시할 검사지를 완성하였다.

김혜래(2006)의 성역할정체성 검사 중 남성성 문항에서는 ‘뒤끝이 없다’는 ‘나쁜 감정이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는다.’, ‘진취적이다’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한다.’ 등으로 수정하였다. 여성성을 측정하는 문항 중 ‘동정적이다’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가엾은 생각이 든다.’, ‘도도하다’는 ‘자존심이 강하고 잘난체한다.’ 등으로 수정하였다. 초등학교생용으로 수정·보완한 성역할정체성 검사지는 남성성 18개 문항, 여성성 18개 문항, 중성성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김혜래(2006)의 50개 전체 문항과 동일하다. 차이가 있는 것은 김혜래(2006)의 검사지는 7점 척도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생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성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앙치 분리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의 남성성, 여성성 점수들의 중앙치를 준거로 하여 각 개인의 남성성, 여성성 점수가 이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응답자를 양성적 유형, 남성적 유형, 여성적 유형, 미분화

유형의 네 집단으로 분류한다. 양성성 집단은 중앙치보다 남성성 점수, 여성성 점수 모두 높은 집단이고, 남성성 집단은 중앙치보다 남성성 점수는 높고, 여성성 점수는 낮은 집단이고, 여성성 집단은 중앙치보다 남성성 점수는 낮고, 여성성 점수는 높은 집단이며, 미분화 집단은 중앙치보다 남성성 점수, 여성성 점수 모두 낮은 집단을 말한다.

김혜래(2003)의 척도개발과정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Cronbach α 는 .77-.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성역할정체성 척도의 신뢰도는 하위요인별로 남성성 .83, 여성성 .79, 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86이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PSS 14.0K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징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초등학교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사용하였고, 초등학교생의 성별과 성역할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원중다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여학생과 남학생 각각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라 교우관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원변량분석, 이원변량분석과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해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성의 교차분석

성별에 따라 성역할정체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표 2>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성의 교차분석

성역할정체성	성 별		전체	
	남학생(명/%)	여학생(명/%)		
미분화	78(36.8)	53(25.1)	131(30)	$\chi^2=41.41^{***}$ $df=3$ $p=.000$
남성성	64(30.2)	25(11.8)	89(21)	
여성성	25(11.8)	47(22.3)	72(17)	
양성성	45(21.6)	86(40.8)	131(31)	
총합	212(100)	211(100)	423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성역할 정체성은 차이가 있었다($\chi^2=41.41$, $p<.001$). 남학생의 성역할 정체성 유형은 남성성, 미분화 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여학생보다 많았으며, 여학생은 양성성과 여성성 성역할 유형 집단이 남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초등학생의 성별과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교우관계의 차이

초등학생의 성별과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남자 교우관계와 여자 교우관계의 평균,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성별 및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교우관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이원변량 분석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성별의 램다값이 .39이고 이에 대한 F 값이 322.23($p<.001$)으로서 성별에 따라 남자 교우관계와 여자 교우관계는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성역할정체성의 램다값이 .83이고 이에 대한 F 값이 13.91($p<.001$)로서 성역할 정체성에 따른 남자 교우관계와 여자 교우관계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성별과 성역할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램다값이 .94이고, F 값이 4.64($p<.001$)이므로 남자 교우관계와 여자 교우관계는 성과 성역할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표 3> 성별과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교우관계의 기술통계

성별	성역할 정체성	N	평균	표준 편차
남	미분화	78	3.14	.34
	남성성	64	3.27	.37
	여성성	25	2.97	.39
	양성성	45	3.49	.46
	합계	212	3.23	.41
남자 교우 관계	미분화	53	2.44	.36
	남성성	25	2.61	.44
	여성성	47	2.62	.44
	양성성	86	2.87	.51
	합계	211	2.68	.48
합계	미분화	131	2.86	.49
	남성성	89	3.08	.49
	여성성	72	2.74	.45
	양성성	131	3.08	.57
	합계	423	2.96	.53
남	미분화	78	2.27	.54
	남성성	64	2.30	.41
	여성성	25	2.49	.43
	양성성	45	2.84	.69
	합계	212	2.42	.57
여자 교우 관계	미분화	53	3.32	.48
	남성성	25	3.78	.50
	여성성	47	3.48	.54
	양성성	86	3.64	.63
	합계	211	3.54	.58
합계	미분화	131	2.70	.73
	남성성	89	2.72	.80
	여성성	72	3.14	.69
	양성성	131	3.37	.75
	합계	423	2.98	.80

<표 4> 성별과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교우관계의 다변량 분석

변량원	종속변수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Scheffé*
성별	남자교우관계	29.63	1	29.63	168.56	.000	
	여자교우관계	102.85	1	102.85	346.74	.000	
성역할정체성	남자교우관계	10.87	3	3.62	20.61	.000	c, a<b, d
	여자교우관계	12.19	3	4.06	13.70	.000	a, b<c<d
성별×성역할정체성	남자교우관계	1.38	3	.46	2.61	.051	
	여자교우관계	5.29	3	1.76	5.95	.001	
합계	남자교우관계	3812.21	423				
	여자교우관계	4033.34	423				

성별 : Wilks' λ =.39, $F=322.23$, $p<.001$
 성역할 정체성 : Wilks' λ =.83, $F=13.91$, $p<.001$
 성별×성역할 정체성 : Wilks' λ =.94, $F=4.64$, $p<.001$

*a : 미분화 집단, b : 남성성, c : 여성성, d : 양성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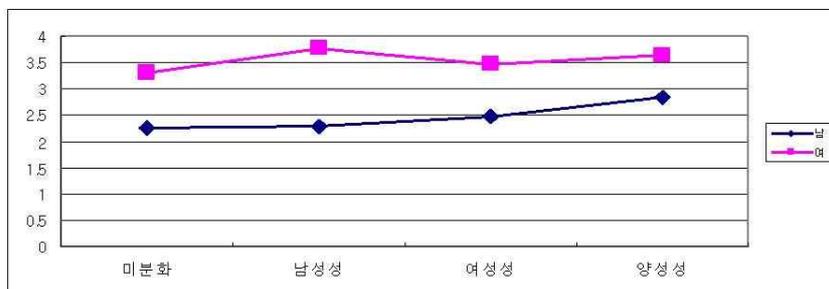
개체간 효과검증에서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남자 교우관계($F=168.56$, $p<.001$)와 여자 교우관계($F=346.74$, $p<.001$)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남자 교우관계도 차이가 있었으며($F=20.61$, $p<.001$), 여자 교우관계도 차이가 있었다($F=13.70$, $p<.001$). 그러나 성별과 성역할정체성의 상호작용은 여자 교우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F=5.95$, $p<.01$), 남자 교우관계에서는 성별과 성역할정체성의 상호작용이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F=2.61$, $p=.051$). 즉, 남학생의 경우에는 양성성을 가진 학생이, 여학생인 경우에는

남성성을 가진 학생이 여학생과의 교우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3. 남학생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교우관계

이원변량분석에서 드러난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남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남자 교우관계와 여자 교우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1) 남학생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남자 교우관계의 차이



<그림 1> 여학생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성역할정체성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표 5> 남학생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남자 교우관계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Scheffé*
집단-간	5.33	3	1.78	12.13***	a, b, c<d
집단-내	30.44	208	.15		c<b
합계	35.77	211			

*a : 미분화 집단, b : 남성성, c : 여성성, d : 양성성

남학생의 성역할정체성의 하위집단 별 전체 남자 교우관계는 <표 5>에서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보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F=12.13, p<.001$).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양성성 집단이 다른 하위집단에 비해 남자 교우관계가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드러났고, 남성성 집단이 여성성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남자 교우관계가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학생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남자 교우관계의 람다값이 .80이고 이에 대한 F 값은 5.27 ($p<.001$)으로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남자 교우관

계는 차이가 있었다. 남자 교우관계의 하위요인 별로 보면 <표 6>에서 성역할정체성에 따라 남자 교우 신뢰감($F=9.16, p<.001$), 남자 교우 존중감($F=11.97, p<.001$), 남자 교우 친밀감($F=4.65, p<.01$)이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을 보면, 남학생들의 남자 교우 신뢰감은 양성성 집단이 미분화, 여성성 집단에 비해 높았고, 남성성 집단이 여성성 집단에 비해 신뢰감이 높았다. 남학생들의 남자 교우 존중감은 양성성 집단이 미분화, 남성성 집단에 비해 높았고, 남성성 집단이 여성성 집단에 비해 존중감이 높았다. 남학생들의 남

<표 6> 남학생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남자 교우관계 하위요인별 차이

	성역할	평균	표준편차	N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Scheffé*
남자 신뢰감	미분화	3.04	.46	78	7.77	3	2.59	9.16***	a, c<d c<b
	남성성	3.24	.53	64					
	여성성	2.70	.58	25					
	양성성	3.33	.61	45					
	합계	3.12	.56	212					
남자 존중감	미분화	2.95	.46	78	9.05	3	2.59	11.97***	a, b<d c<b
	남성성	3.13	.50	64					
	여성성	2.78	.49	25					
	양성성	3.43	.58	45					
	합계	3.09	.54	212					
남자 친밀감	미분화	3.38	.42	78	2.68	3	.89	4.65**	a, b, c<d
	남성성	3.41	.40	64					
	여성성	3.34	.42	25					
	양성성	3.65	.53	45					
	합계	3.44	.45	212					

Wilks' $\lambda=.80, F=5.27, p<.001$

*a : 미분화 집단, b : 남성성, c : 여성성, d : 양성성

<표 7> 남학생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여자 교우관계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Scheffé*
집단-간	10.86	3	3.62	12.88***	
집단-내	58.42	208	.28		a, b<d
합계	69.28	211			

*a : 미분화 집단, b : 남성성, c : 여성성, d : 양성성

자 교우 친밀감은 양성성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모두 친밀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 남학생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여자 교우 관계의 차이

남학생의 성역할정체성 하위집단 별 전체 여자 교우관계는 <표 7>에서 일원변량 분석 결과를 보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F=12.88, p<.001$).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양성성 집단이 미분화, 남성성 집단에 비해 여자 교우관계가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드러났고, 남성성 집단이 여

성성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여자교우관계가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학생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여자 교우관계의 람다값이 .83이고 이에 대한 F 값은 4.46 ($p<.001$)으로 성역할 정체성에 따른 여자 교우관계는 차이가 있었다. 여자 교우관계의 하위요인 별로 보면 <표 8>에서 성역할정체성에 따라 여자 교우 신뢰감($F=9.59, p<.001$), 여자 교우 존중감($F=11.41, p<.001$), 여자 교우 친밀감($F=8.10, p<.01$)이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을 보면, 남학생들의 여자 교우 신뢰감은 양성성 집단이 남성

<표 8> 남학생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여자 교우관계 하위요인별 차이

	성역할	평균	표준편차	N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Scheffé*
여자 신뢰감	미분화	1.93	.64	78	13.78	3	4.59	9.59***	b, a<d
	남성성	1.90	.65	64					
	여성성	2.10	.60	25					
	양성성	2.55	.87	45					
	합계	2.07	.73	212					
여자 존중감	미분화	2.05	.62	78	14.86	3	4.95	11.41***	b, a<d
	남성성	2.04	.58	64					
	여성성	2.31	.58	25					
	양성성	2.69	.84	45					
	합계	2.21	.71	212					
여자 친밀감	미분화	2.72	.58	78	6.65	3	2.22	8.10***	a, b<d
	남성성	2.82	.40	64					
	여성성	2.94	.48	25					
	양성성	3.19	.60	45					
	합계	2.88	.55	212					

Wilks' $\lambda=83, F=4.46, p<.001$

*a : 미분화 집단, b : 남성성, c : 여성성, d : 양성성

<표 9> 여학생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남자 교우관계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Scheffé*
집단-간	6.44	3	2.146	10.45***	
집단-내	42.52	207	.21		a, c<d
합계	48.96	210			

*a : 미분화 집단, b : 남성성, c : 여성성, d : 양성성

성, 미분화 집단에 비해 높았다. 남학생들의 여자 교우 존중감은 양성성 집단이 남성성, 미분화 집단에 비해 높았고, 남학생들의 여자 교우 친밀감은 양성성 집단이 미분화, 남성성 집단에 비해 모두 친밀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4. 여학생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교우관계의 특성

이원변량 분석에서 드러난 결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남

자 교우관계와 여자 교우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여학생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남자 교우 관계의 특성

여학생의 성역할정체성의 하위집단 별 전체 남자 교우관계는 <표 9>에서 일원변량 분석 결과를 보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F=10.45$, $p<.001$).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여학생들은 양성성 집단이 미분화, 여성성 집단에 비해 남자교우 관계가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학생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남자 교우관

<표 10> 여학생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남자 교우관계 하위요인별 차이

	성역할	평균	표준편차	N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Scheffé*
남자 신뢰감	미분화	2.16	.47	53	11.09	3	3.70	8.95***	a, c<d
	남성성	2.38	.70	25					
	여성성	2.28	.69	47					
	양성성	2.70	.69	86					
	합계	2.43	.68	211					
남자 존중감	미분화	2.26	.47	53	11.80	3	3.93	13.91***	a, b, c<d
	남성성	2.43	.48	25					
	여성성	2.49	.53	47					
	양성성	2.83	.58	86					
	합계	2.56	.58	211					
남자 친밀감	미분화	2.82	.43	53	1.69	3	.56	2.44	
	남성성	2.94	.39	25					
	여성성	2.99	.42	47					
	양성성	3.04	.56	86					
	합계	2.96	.49	211					

Wilks' $\lambda=0.81$, $F=4.88$, $p<.001$

*a : 미분화 집단, b : 남성성, c : 여성성, d : 양성성

<표 11> 여학생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여자 교우관계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Scheffé*
집단-간	4.98	3	1.66	5.31**	
집단-내	63.67	207	.31		a<b, d
합계	69.65	210			

*a : 미분화 집단, b : 남성성, c : 여성성, d : 양성성

계의 람다값이 .81이고 이에 대한 F값은 4.88 ($p<.001$)로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남자 교우관계는 차이가 있었다. 남자 교우관계의 하위요인별로 보면 <표 10>에서 성역할정체성에 따라 남자 교우 신뢰감($F=8.95, p<.001$), 남자 교우 존중감($F=13.91, p<.001$)이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남자 교우 친밀감은 차이가 없었다. 사후분석을 보면, 여학생들의 남자 교우 신뢰감은 양성성 집단이 미분화, 여성성 집단에 비해 높았다. 여학생들의 남자 교우 존중감은 양성성 집단이 미분화, 남성성, 여성성 집단에 비

해 높았다.

2) 여학생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여자 교우 관계의 특성

여학생의 성역할정체성 하위집단 별 전체 여자 교우관계는 <표 10>에서 일원변량 분석 결과를 보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F=5.31, p<.01$).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양성성 집단이 미분화 집단에 비해 여자 교우관계가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드러났고, 남성성 집단이 미분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여자 교우관계가 좋은 것으로

<표 12> 여학생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여자 교우관계 하위요인별 차이

	성역할	평균	표준편차	N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Scheffé*
여자 신뢰감	미분화	3.29	.58	53	5.21	3	1.74	4.14**	a<b
	남성성	3.74	.65	25					
	여성성	3.36	.63	47					
	양성성	3.59	.69	86					
	합계	3.48	.66	211					
여자 존중감	미분화	3.16	.55	53	7.44	3	2.48	6.15***	a<b, d
	남성성	3.66	.60	25					
	여성성	3.36	.64	47					
	양성성	3.58	.69	86					
	합계	3.44	.66	211					
여자 친밀감	미분화	3.49	.50	53	3.55	3	1.18	3.17*	a<b
	남성성	3.91	.48	25					
	여성성	3.67	.60	47					
	양성성	3.73	.70	86					
	합계	3.68	.62	211					

Wilks' $\lambda=.90, F=2.52, p<.01$

*a : 미분화 집단, b : 남성성, c : 여성성, d : 양성성

드러났다.

여학생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여자 교우관계의 람다값이 .90이고 이에 대한 F 값은 2.52 ($p < .01$)으로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여자 교우관계는 차이가 있었다. 여자 교우관계의 하위요인 별로 보면 <표 12>에서 성역할정체성에 따라 여자 교우 신뢰감($F=4.14, p < .01$), 여자 교우 존중감($F=6.15, p < .001$), 여자 교우 친밀감($F=3.17, p < .05$)이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을 보면, 여학생들의 여자 교우 신뢰감은 남성성 집단이 미분화 집단에 비해 높았다. 여학생들의 여자 교우 존중감은 남성성, 양성성 집단이 미분화 집단에 비해 존중감이 높았고, 여학생들의 여자 교우 친밀감은 미분화 집단이 남성성 집단에 비해 친밀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교우관계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에 따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성 유형의 분포는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미분화 유형이 많고 여학생은 양성성 유형이 많았다. 이것은 김병선(1998)과 김선정(2002), 안순(2004)의 결과와 일치한다. 여학생의 양성성 유형이 남학생에 비해 많은 것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신체적 변화에 의한 성유형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6학년 시기에 여학생의 2차 성징이 남학생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신체적 발육이 성유형화에 영향을 미치고 성역할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볼 수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미분화 유형이 많은 것을 발달적인 요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남자 중·고등학생의 유형분포에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양성성 유형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반대로 미분화 유형 비율은 감소한 김혜래(2006)의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높은 학교현장의 여성화 현상이 남학생의 성역할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순(2004)은 여학생의 경우 성장함에 따라 사회가 남성적 특성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남학생에 비해 양성적 성향이 강해지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둘째, 성별과 성역할 정체성에 따라 교우관계는 차이가 있고, 성과 성역할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 성역할 정체성의 차이에 따라 이성과 동성간에 교우관계가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초등학교의 성별에 따른 교우관계 특성의 차이는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고, 이러한 차이는 고학년이 되면 동성과 이성간의 교우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즉, 여학생은 동성간의 상호작용이 더 빈번해지고(Parker & Asher, 1993), 이성에 대한 대립의식이 증대된다(강신복·차호원, 1987).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친밀감, 정서적 안정을 포함한 교우관계의 질이 낮아, 이 시기에는 성별에 따른 교우관계가 차이 나는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차이가 단순히 성별에 의한 차이가 아니라 성별과 성역할정체성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함을 보여준다. 즉, 고학년이 되어 성역할정체성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발달하므로 고학년의 동성 및 이성관계가 차이 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셋째, 남학생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교우관계는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은 동성인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양성성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교우관계가 좋았고, 남성성 유형이 여성성 유형에 비해 교우관계가 좋았다. 교우관계 하위요인 모두에서 양성성 유형이 가장 교우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뢰감과 존중감에서는 남성성 유형이 여성성 유형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의 동성관계에서는 놀이와 활동에서 주도적이고 행동적인 남성성이 또래로부터 더 지지받는다 할 수 있어, 초등학교 남학생의 동성간의 교우관계 향상을 위해서는 남성(男性)적 성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학생은 이성인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양성성 유형이 남성성과 미분화 유형보다 교우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 하위요인 모두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인다. 이는 남성적 주도성과 여성적 친화성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양성성 유형의 남학생의 여성적 친화성이 여자친구와의 교우관계에서 기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해 보면, 남학생은 양성성 유형이 동성과 이성친구 모두와의 교우관계가 좋으며, 동성친구일 경우에는 남성성 유형도 교우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학생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교우관계는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은 동성인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양성성과 남성성이 미분화 유형보다 교우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 하위요인 모두에서 남성성 유형이 미분화 유형보다 교우관계가 좋았다. 이는 여학생간의 교우관계에는 암전하고 수동적인 여성성의 특징보다는 주도적이고 표현적인 남성성의 특징이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Hemmer와 Kleiber(1981)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자 같은 말괄량이 여아가 더 창조적인 친구로 생각되고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여학생의 이성인 남자친구와의 교우관계에서는 양성성 유형이 미분화와 여성성 유형보다 교우관계가 좋았다. 또한, 하위요인의 신뢰감과 존중감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친밀감에서는 성역할정체성 유형에 따른 교우관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 시기의 여학생들은 이성에게 표면적으로 적대적이며(강신복·차호원, 1987), 관심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여학생은 동성 친구와의 관계는 남성성 유형이 교우관계가 좋으며, 이성친구일 경우에는 양성성 유형이 교우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남학생은 양성성일 때 여학생은 남성성일 때 사회적 점수가 높다고 한 서은희(1995)의 연구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며, 성역할정체성에 따라 인간관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한 강영숙(1999)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남학생의 경우 남성성, 양성성 집단이, 여학생의 경우 양성성, 남성성 집단이 교우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안순(2004)의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하지만 본 연구와 안순(2004) 연구와의 차이는 안순(2004)은 남·여의 교우관계를 하나의 변인으로 설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여 각각의 동성과 이성간의 교우관계를 변인으로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여학생의 남성성은 동성간의 교우관계에서는 영향력이 있지만, 이성간의 교우관계에서는 두드러진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미미한 차이지만 남학생의 여성성 역시 동성간의 교우관계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학생의 남성성과 남학생의 여성성에 따른 교우관계 양상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제한점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성역할정체성 분류에 있

어서 중앙치 분리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체 응답자가 작위적으로 4가지 유형의 집단에 분류될 수밖에 없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측정 집단에 의해 중앙치가 정해짐으로써 집단을 바꾸었을 때 성역할 유형의 변화가 생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역할정체성 검사지는 중·고등학생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발된 것으로 문항을 아동의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지만 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초등학생의 발달수준에 맞는 성역할정체성 검사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 여학생 모두 양성성 유형이 동성간 이성 간 교우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교우관계 향상을 위해 양성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5, 6학년 시기의 여학생, 남학생 모두는 남성성 성역할정체성이 동성 친구와의 교우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성과의 교우관계가 중요한 시기인 5, 6학년 아동을 지도하는데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는 동성간의 교우관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동성간에 친밀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아동은 왕따와 집단따돌림의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동성친구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에게 남성성 성역할 유형의 특성인 이성적, 주도적, 활동적, 독립적, 객관적인 태도를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시기 아동의 교우관계 향상을 위해서는 동성간 이성 간 교우관계를 좀 더 세분화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역할 사회화 과정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동에게 초등학교 현장의 과도한 여교사의 비중으로 인한 여성성의 학

교문화가 아동의 성역할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신복·차호원(1987). 집단상담의 이론과 기술. 서울: 교보문고.
- 강영숙(1999). 제주도 초등학생의 성, 성정체성, 자기노출 및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효순(2003). 초등학교 학생들의 또래집단 형성과 학교생활만족도 및 학교폭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란(2002).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04). 초등학생의 교우관계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선(1998). 초등학교 아동의 통제소재와 성역할정체성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부홍(2003).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사회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정(2002). 초등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정체성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남(2007). 놀이중심의 인간관계 촉진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교우관계와 교사-학생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임(2006).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성과 학교생활 적응도와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진(2005). 해결중심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아동의 교우관계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1998). 한국형 성역할검사개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7호.
- 김정희(2005). 양성평등교육이 중학생의 성역할 정체성과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석

- 사학위논문.
- 김진경(2002). 시설거주 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초기 청소년기의 의사소통 기술과 또래관계의 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래(2006). 청소년의 성역할정체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연구*, 12(2), 135-152.
- 내일신문(2007. 7. 20).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말하는 요즘 6학년.
- 서은희(1995). 국민학생의 성역할 태도와 심리적 안정성 및 사회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나연(2002). 아동의 성역할 정체성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한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기은(1998). 협동작업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교우관계 증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 순(2004).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가효(1994). 아동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성역할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5(1), 127-144.
- 윤영옥(2003). 미술활동을 활용한 자기성장프로그램 적용이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화(1986). 유아기 자녀의 성유형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2000). 자연과 수업에서 협동학습이 과학지식, 탐구능력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림 · 박인숙(2002). 집단미술활동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 인문연구*, 42, 169-192.
- 임낙수(2002). 비만도와 체형인식이 초등학교 고학년 생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순아(2002). 양성평등 교육이 초등학교 학생의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1981). *인간과 교육*. 서울 : 배영사.
- 최순영(2005). *인간의 사회 · 성격 발달심리*. 서울 : 학지사.
- 홍성옥(1996). 아동의 성역할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옥순(1984). *학교현장의 이론과 실제*Ⅲ. 서울 : 갑을출판사.
- 홍희연(2002). 11-15세 아동 · 청소년의 동성 및 이성 친구관계 특성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인복(2005). 초등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의 실태분석. 경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em, S. L. (1974). The measur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endt, T. J. (1986). Children's comments about their friendship in M Perlmutter(Ed.). *Cognitive perspectives on children's social and behavioral development. The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18, 189-21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erndt, T. J., & Perry, T. B. (1990). Distinctive features and effects of early adolescent friendships. In R. Montemayer, G. R. Adams, & T. P. Gullotta (Ed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 A transitional period?*(pp.269-287). Newbury Park, CA : Sage.
- Cook, E. P. (1985). *Psychological androgyny*. New York : Pergamon Press.
- Feiring, C., & Lewis M. (1991). The transition from middle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Sex Roles*, 24(3/4), 237-253.
- Hayden-Thomson, L., Rubin, K. H., & Hymel, S. (1987). Sex preferences in sociometric choices. *Developmental Psychology*, 23(4), 558-562.
- Hemmer, J. D., & Kleiber, D. A. (1981). A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Sex Role*, 7, 1097-1108.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 Psychology*, 29, 611-621.

- Spence, J. T., Helmreich, R., & Stapp, A. J. (1975). Rating of self and peers on sex role attributes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concep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1), 29-39.
- Taylor, M. C., & Hall, J. A.(1982). Psychological androgyny : Theories, Methods, and Conclusions. *Psychological Bulletin*, 92, 347-366.
- Whitley, B. E. (1983). Sex role orientation and self-esteem : A critical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765-778.
- Youniss, J. (1978). A rel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friendships. *In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ed. by W. Damon. San Francisco, Jassay-Bass.

2009년 4월 30일 투고, 2009년 6월 25일 수정
2009년 7월 7일 채택